

## 도농교류의 운영과 마케팅 전략, 흠집짓기

오 형은 간사  
(녹색교류대학 최고지도자과정)

어느 듯 5회차에 접어드는 녹색교류대학 최고지도자 과정에서 넘긴 술한 고비들처럼 광주에서 상호마을로 넘어가는 길 또한 고개와 언덕을 들었나 나왔다 하며 구불구불 돌아서는 길이 한참이었습니다.

5회차 강의의 테마는 녹색교류의 운영관리전략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김재일님(두레생태기행)의 우리민족의 생태적 삶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생태체험은 생물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들과 풀숲을 둘러보며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강의속에서 우리가 농촌에서 자연과 문화를 통해 진정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잠재적 자원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위해 협동조합과 농가, 농가와 농가

간의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속 시원한 수업을 박영범 대표에게서 듣고 또, 농촌마을의 민박을 경영과 시설과 서비스의 운영관리방법에 관한 열정적인 강의를 강신겸 박사에게서 들었습니다.

첫날의 강의가 끝이 나고, 팜스테이 전국연합회 회원과 농협중앙회 임원과 최고지도자 과정 녹색교류대학 지도자 과정의 수강생들이 함께 했습니다. 모두들 한 두번씩 만났던 분들이거나 아님 앞으로 만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반갑게 인사를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안동하회탈춤을 보고, 상호마을에서 석수공원을 운영하시는 권혁진 선생님이 준비해주신 맛있는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6번째의 강의는 포천군의 마음밭농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외부의 더운 날씨와 달리 시원한 바람이 간간이 있어 강의반기엔 더없이 좋은 날씨인 듯 했습니다. 강의는 연천군의 풍천관광농원을 운영하시는 임동혁 선생님의 관광농원 경영전반에 관련된 수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 30대 젊은 소비자를 대표한다는 임영진부장의 소비자 시장변화에 따른 농산물 마케팅 전략의 강의와 김기찬교수의 사례를 통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 김향자실장의 관광에서의 마케팅의 일반론에 대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주제는 손수 짓는 집이었습니다. 그 수업의 첫 강의는 우리가 묵었던 마음밭 농원의 이철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직접 만드신 모형과 계획서, 모여진 자료, 책들을 함께 가져오셔서 마음밭에 담



▲ 이철학선생님이 손수 지은 마음밭 농원의 흠집에서 강의장면

아는 애정과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음밭농원은 93년부터 이철학 선생님이 꿈꾸오다 94년 귀농으로 시작하여 흙집 민박동운영, 흙집강좌, 인터넷 홈페이지운영, 생태체험교육 등의 사업을 매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꾸려나가고 이제는 대체에너지 시설을 개발하고, 전통혼례를 준비하고, 생태교육과 부부관계개선 프로그램을 개발을 준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의 강의를 통해 참으로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흙집을 시작으로 집짓기에 대한 수업이 계속되었습니다.

민들레울은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에 있던 1939년 지어진 집으로 다른 곳에 옮겨서 지은 이실집이었습니다. 못을 사용하지 않고 사개를 맞춰 나무를 조립시키고, 한치의 빈틈도 없이 치목하여 기둥과 도리, 보 등이 서로 맞물려 지어 해체하여 그대로 옮겨서 지을 수 있는 한옥의 장점을 이용한 집이었습니다. 민들레울은 한옥의 그런 장점을 최대한 살려 배산임수의 좌향이 좋은 광릉수목원으로 옮겨와 본채와 사랑채, 교육과, 측간, 초가와 기와, 돌기와로 이뤄져있고, 문화공간, 전통차실, 한옥집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비오는 날 기와처마 아래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따뜻한 수제비를 먹으며, 우리 문화속의 지속가능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음은 우림통나무 학교, 캐나다에서 수입한 원목으로 손수 짓는 통나무 주택만드는 법에 대한 수업을 우림 통나무학교장인 유재완 선생님께서 들었습니다. 집짓기의 마지막 수업은 직지사에서 10년간 목공 도제 수업을 받은 신창호 선생님의



▲ 1993년 천연동에 있던 한옥을 옮겨지은 민들레울



▲ 고귀하고 품위있는 한옥

한옥집에서 엮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아는 소박한 한옥과 달랐습니다. 고귀하고, 귀품있고, 우아한 한옥은 한옥의 또 다른 가치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강의 내내 사례로 이야기되었던 유명한 교동마을의 방문은 40여분을 20여대의 차가 비상등을 켜고 달린 끝에 이뤄졌습니다. 교동마을은 1992년부터 팜스테이 마을로 시작하여 이수인씨의 절대적인 헌신, 저투자의 소박한 농촌의 풍경 유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외국인 유치에 성공하면서 더욱더 유명해진 듯 했습니다. 그밖에 행정자치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잘 활용해 마을을 아름답게 가꾼 것도 그 성공 요인에 한몫을 한 듯 했다. 그러나 10년을 넘게 유무형의 자원이 조금씩 만들어진 마을이 한탄강댐 사업에 의해 수몰지역으로 될지도 모르는 운명에 처해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니 참으로 마음 아픈일이었다. 언제나 돌아갈 땐 아이의 손을 잡으며 '삼촌이 주는 거니까 가는 길에 먹어라' 하시며 넘겨주시는 검은봉지안의 감자, 옥수수, 참외 등으로 무한한 가치를 만들어내던 이수인씨의 손을 잡으며 "고맙습니다"라는 말뿐이 하지 못했지만 '용기없지마세요, 잘될 거예요, 정말 고생하셨겠네요' 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쉬움으로 6번째 수업은 끝이 났습니다. ㉞